

#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

	6월 11일 금요일	<h2>보도자료</h2>	
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

실과	축산정책과	과장	박도환	팀장	김태원	☎	286-6520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## 전남도, 축산분야 연구개발사업(5개년 251억원) 본격 추진에 나서!

- 미래 축산에 대응, 8개 연구과제에 15개 대학·기업·기관들이 참여 연구 개발에 힘써 -

- 전남도는 지난 4월 선정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 연구개발(R&D) 신규 사업인 ‘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’과 ‘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’ 국비 251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  -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8개 연구과제 251억 원 과제에 선정된 15개 대학·기업·기관들이 대상 사업별로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의 본격 착수를 위한 사업관리 및 운영방법, 사업비 사용방법 등 매뉴얼 숙지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다.
- ‘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’은 3개 부·처(농림축산식품부, 농촌진흥청, 과학기술정보통신부) 공동 주관으로 스마트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증, 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·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4년간 6개 과제에 214억 원이 투입된다.
  - 주요 과제로는 ▲ 축산 생력화 로봇 개발(66억원) ▲ 축우 2세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(44억원) ▲ 2세대 돼지 스마트 축산 모델 개발(32억원) ▲ 축사 복합환경 지능형 동적제어 기술개발(27억원) ▲ 모돈 및 포유자돈 스마트 축사 통합모델 설정 및 실증(23억원) ▲ 돼지 정밀 모니터링 및 지능형 사양관리 기술개발(22억원) 사업이다.
- ‘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’은 축산분야 당면과제 해결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, 미래 대응 기반구축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2개 과제에 37억 원이 투입된다.
  - 주요 과제로는 ▲ 오리축사 깔짚 관리용 자율주행 로봇개발(14억원) ▲ 가축 온실 가스 발생 저감 기술개발(23억원) 사업이다.

□ 전라남도는 지난해부터 정부 연구개발(R&D) 사업 공모에 대비해 **전남도 소재 대학, 기업체,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준비한 결과 251억원(5개년)의 국비를 최다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.**

-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 : 6개과제 국비 214억원(2021년 50억원)
-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: 2개과제 국비 37억원(2021년 7억원)

□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**연구의 성과가 축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**”라며, “**앞으로도 당면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사업 발굴·제안은 물론 국비에산 확보에도 힘 쓰겠다.**”고 밝혔다.